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해방 직후에 태어난 나는 6·25의 충성을 배경으로 동네 청년들이 부르는 '전우의 시체를 남고 남어'를 들으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개구리나"의 곡조에 맞춰 고무줄놀이했다. 오랑캐란 그저 나쁜 놈을 가리키는 말로만 알았지, 중국 사람이 주변 민족을 깔보는 뜻으로 쓰는 용어라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다.

나의 가요 반세기

어학생들은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와 "꽃잎은 하얗게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를 즐겨 불렀는데, 제목인 '사우(思友)'가 '동무 생각'이고 '동심초(同心草)'는 당나라 기생 설도(薛濤)의 시귀 "부절동심초(不結同心草) 공결동심초(空結同心草) 그대와는 한마음 맞지 못하고 부절없이 풀잎만 맺고 있는고"에서 유래한 것임을 나는 알 턱이 없었다.

여학생들은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와 "꽃잎은 하얗게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를 즐겨 불렀는데, 제목인 '사우(思友)'가 '동무 생각'이고 '동심초(同心草)'는 당나라 기생 설도(薛濤)의 시귀 "부절동심초(不結同心草) 공결동심초(空結同心草) 그대와는 한마음 맞지 못하고 부절없이 풀잎만 맺고 있는고"에서 유래한 것임을 나는 알 턱이 없었다.

월남의 달밤" 같은 반(反)지리화적 언더리 노래가 월남 파병 덕분에 크게 유행했다. 김추자의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는 그보다 뒤인 1970년대의 노래다.

대학에 들어가니 서울 사는 동급생들이 이른바 음악감상실이란 데를 처음으로 데려갔는데, 여기서 팝송이란 걸 처음으로 귀에 익히게 되었다. 물론 나에게도 최희준의 '하숙생' 같은 노래가 더 친숙했지만 말이다.

대학생들도 술자리에서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와 함께 "자가용 타고 가는 놈 너만 잘났나 전차 타고 가는 놈 나도 잘났다"같은 구절 가요도 부르고, 농활에 열심히 친구들은 "진주 난봉가"나 "한오백년" 같은 민요를 부르기도 했으며,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는 펄 시스템즈의 '커피 한잔'이나 정중희의 '안개'가 더 인기였다.

그리고 보니 릴케에 심취해 술이 거나하면 "안개"를 즐겨 부르던 선배는 벌써 세상을 뜨고 없다. 슈베르트의 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와 '홍수'를 독일어로 가려쳐 주신, 오드리 헵번 같은 선생님도 멀리 있어 만날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대략 떠올려보니,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잘못된 일들이 연결되어 떠오른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전남 교육위원 지금이 감투싸움 할 때가

전남도교육위원회가 의장직을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한다. 낙후된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판에 '감투싸움'에만 열중하는 교육위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전남도교육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최근 서경룡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작성해 서명까지 마쳤다. 리더십과 자질이 부족하고, 의장실 비서관과 운전원을 정실 채용했으며, 집행부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낯뜨거운 감투싸움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한다. 지난해 의장 선거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밀약한 '의장직 1년씩 나눠먹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위원 전원은 사퇴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위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1년씩 나눠먹기를 한다는 게 가담키나 한 일인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육위원들의 자질이 의심하겠다는 건가. 이는 교육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지금이 감투싸움이 할 때가 아니다. 현 도교육감의 임기가 내달 25일에 끝나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교육감 자리는 공석이다. 따라서 도교육위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전남교육 행정에 한 치의 양을 수 없다. 불신임을 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열악한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전남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 것이 교육위원들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다. 그럼에도 자리타돌이나 벌이는 교육위원들이 한심스럽고 전남교육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제품 구입부터

광주지역 학교들을 상대로 한 에어컨 수주전에서 지역에 생산시설을 갖춘 가전업체들의 제품 판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에 추진한 학교 에어컨 사업은 400억원대 규모로 국내 굴지의 가전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광주에 생산라인을 둔 삼성전자가 전체 계약액의 39%를 점유했으나 이 지역에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LG전자 역시 38%를 차지했다.

지역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제품 구매운동을 전개해 왔다. 주요 간선도로 명칭까지 광주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의 이름을 따 정도로 지역기업과의 밀착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역제품 구매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학교 에어컨 사업에서는 지역에 생산시설을 갖춘 제품에 대한 관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지역제품에 대한 우대가 사라진 것이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민들이 의면한다면 애써 기업을 유치한 의미가 반감되기 마련이다.

차제에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역 대형마트나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들의 지역상품 구매 실태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이 지역민들 사이에 확산되어야 한다.

無等鼓

부패 혐의로 기소된 천수이벤(陳水扁) 전 대만 총통 부부에 대한 종신형 선고 후 대만이 시끄럽다. 천수이벤 부부의 종신형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으로 국론이 급속하게 분열돼 대립하는가 하면, 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은 삼해 위험을 받아 경찰이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애초 천수이벤은 대만 민의의 대표자로 국민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정치인이었다. 변호사 시절 반정부 시위 연루 인사 변론에 나섰다 정계에 입문한 그는 국민당이 저지른 부정 부패 고발자였다.

그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직위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천수이벤의 폭로는 국민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고 대만 민주주의 의도 따라서 발전했다.

천수이벤은 2000년 총통 선거에서 당선됐다. 천수이벤이 선거 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해 휠체어에 의지해왔던 아내 우수전(吳淑珍)을 두 팔에 안고 나타나면 청중은 모두 숙연해 했고 동정표가 모여 마침내 최고 권력자가 됐다.

총통 취임 후 천수이벤 청렴과 도덕성을 견지하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권력의 달콤함에 젖어버린 천수이벤은 몰락의 길로 빠졌다. 재선에 성공했지만 인기를 마친 후에는 총통 시절 아내와 딸, 사위 등 가족과 주변 인물들이 합세해 저지른 뇌물 수수와 기밀비 횡령죄로 수감됐다. 지난 11일에는 부부가 종신형 판결을 받아 '대만의 치욕'으로 전락했다.

대만 정부 측은 전 총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불법자금 반환작업에 나섰다. 정부 측은 스위스 2개 은행에 숨긴 2천100만 달러 규모의 불법자금을 되찾기 위해 스위스 사법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 때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천수이벤 역시 권력자를 유혹하는 부정부패의 덫에 걸린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쪼들쪼들 감방에 갇혀있는 천수이벤은 '부패의 종말'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지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부패의 종말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장휘국



사람마다 고향마을 뒷동산에 얽힌 추억을 몇 개씩은 갖고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어릴 적 일들을 생각하면 뒷동산에 올라 칠패리를 캐거나 도토리나 알밤을 줍고 다람쥐를 쫓던 동무들 얼굴이 그려워지고, 애똥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순수하고 자발적 시민운동이 성과를 내는 것을 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함께하고, 시민과 학생, 군인도 참여하고 헬기까지 동원돼 바위틈에 우서 박은 쓰레기를 치웠다. 뿌리를 드러내고 신음하는 나무에 흙을 날라 복토하는 대규모 '무등산사랑 범시민대회' 행사도 치르면서 '유별난' 산사랑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내친결정으로 산자락을 자르고 파헤치는 막개발도 반대하고, 우후죽순처럼 마구 난립한 상가와 원주민촌을 정비하고, 수십 년간 주둔하던 군부대도 철수

기고

고성혁



1597년 음력 9월 16일, 결전의 날이 밝았다. 왜장 와키자카가 이끄는 350여명의 일본함대는 여란진에 진을 치고, 선봉함대로 4개 편대 133척이 울돌묵으로 향했다. 와키자카는 한산 앞바다에서 충무공에게 대패를 당하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경험을 했던 인물.

충무공은 이미 그들의 침입을 예견하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판옥선 13척으로 10배가 넘는 대군을 상대해야 했던 장군은 노를 짓는 격군들을 격려하여 함선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시켜 놓았다. 그리고 피를 토하는 절절한 심정으로 '필사즉생 필생즉사

보인 진은 학익진(鶴翼陣)이었다. 명량에서는 우리 함선이 너무나 부족해 밀물도 밀려오는 왜선들을 횡혈로 막았다가 썰물에 밀려가는 적의 중심을 종렬로 제압했으며, 한산에서는 54척의 배로 110여 척을 비교적 여유 있게 상대하면서 적의 날개 형태로 왜선을 감싸 안듯 격파했다. 충무공은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말씀하시며 특히 이 해전 승리의 주역은 여선과 식량을 스스로 갖고 나와 충무공과 조선수군을 도와 싸운 전라도 민초들이었음을 기술했다. 임진년(1592. 7.)에 한산대첩이, 정유년(1597)에 명량대첩이

명량대첩과 412년 뒤의 축제

(必死即生 必生即死)라는 유명한 사자후를 남겼다.

드디어 오시(11시)가 되었다. 133척의 왜선이 해남과 진도 사이의 울돌묵에 휘휘 나비떼처럼 몰려들었다. 13척의 조선 판옥선은 나는 듯 일본 수군의 중심을 깨뜨리며 전진했다. 일본수군의 접근을 교묘한 조종술로 피해 드디어 일본수군 사이에서 일자(一字)로 선 조선수군은 배의 양편에서 일제히 함포사격을 가했다.

이 전투는 오전 오시(11시)부터 신시(오후 4시)까지 장장 5시간에 이르는 대역사였다. 충무공은 남해바다에서 승리를 거둔 뒤 서해를 돌아 한양으로 진출하려는 133척의 일본 수군을 맞아 단 1척의 배도 잃지 않으면서 적선 31척을 침몰시키고 90척을 파손시켰다. 한편의 드라마였다. 충무공은 그날의 대승리를 임진·정유 7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세계역사에 영원히 불멸의 신화로 남을 명량대첩이었다.

충무공이 명량대첩에서 보인 진은 일자진(一字陣)이었으며, 한산대첩에서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가장 규모가 큰 승리는 76척의 적선을 격침시킨 한산대첩이고, 가장 극적인 승리는 명량대첩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두 해전을 세계 4대 해전 범주에 넣는다.

전남도는 412년 전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구해낸 이순신 장군과 호남 민초의 승리를 역사의 교훈으로 배우고 또 기리고자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울돌묵(진도대교)에서 명량대첩축제를 개최한다. 이 명량대첩 축제는 특히 최고의 하이라이프로서 당시의 치열했던 명량해전 상황을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재현한다. 역사 현장 울돌묵 바다에서 200여 척의 전함함포 3천여 명의 출연진이 펼쳐는 바다 위의 판타지는 리얼한 감동을 주는 크나큰 역사체험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인근 민가에서 하루를 머무는 '명량 1박2일 홈스테이'를 통해 땅굴 해남과 문화예술품의 보고장 진도의 아름다움도 특별한 정취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도록 가슴에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도 관광정책과장>

자매결연 단체, 바쁜 농촌 일손 덜어줬으면

얼마 전 충북농협에서 충청북도 각 농촌과 자매결연을 한 전국의 기업이나 단체, 아파트 단지 등에 자매결연 마을을 방문해 달라는 부탁의 사신을 띄웠다는 보도를 접했다. 순천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고향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충청북도의 노력을 보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듯 해 참 가슴이 찡한 느낌이 들었다.

최근에 고향 부모님께 갔더니 고추 따고 참깨 따고 상추일 따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이렇게 바쁘고 일손이 부족할 때 자매결연 단체나 기업에서 그 농촌을 방문해 준다면 농민들은 용기백배할 것이다.

자매결연 마을에 가족단위로 방문을 해준다면 그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농촌체험학습 기회도 될 것이다. 광주·전주·목포 등 도시의 모든 기업과 단체들이 자매결연을 한 전라북도 농촌에 꼭 한번 찾아보는 시간적 여유와 배려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려 보는 바이다. ▲김세준·광주시 남구 도곡동

생수 패트병,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동네 슈퍼에 가면 햇빛이 드는 곳에 생수가 담긴 패트병을 잔뜩 쌓아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길거리 트럭 짐칸에도 생수를 가득 담은 페트병 박스가 그대로 노출된 채 가까운 햇빛을 받고 있는 장면도 흔하게 본다. 하지만, 패트병을 햇빛이 드는 외부에 보관하거나 요즘같이 뜨거운 차 안에 놔두고 그냥 마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페트병에는 '프탈레이트 환경호르몬'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직사광선을 받

경우 생수 내에 녹아내릴 수 있다고 한다. 이 물질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용기와 스티로폼 재질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가열시 나오는 이 물질들을 먹을 경우 시간이 지나서 암을 유발할지라도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업자들은 생수가 담긴 페트병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생수를 마시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배근아·광주시 동구 소재동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222-4918, 사회 2부 2200-692, 편집 2부 2200-672, 정치 2부 2200-634, 경제 1부 2200-612, 사회 1부 2200-612, 대표 FAX 222-4267, 문화 2부 2200-692, 언론매체부 2200-669, 체육팀 2200-669, 사진부 2200-691, 조서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광고이메일 2200-521, 고객센터 2200-551, 다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